

강희업 대광위원장, “경기 서부에서 서울로 가는 길을 편리하게” - 10일 올림픽대로 당산역 환승시설 찾아 적기 준공·안전사고 예방 강조 -

-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5월 10일(금) 오후 3시 올림픽대로 당산역 환승시설 건설현장을 방문하였다.
 - 이번 방문은 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적기 준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- 당산역은 과주·고양·김포 등 경기 서부와 인천에서 들어오는 광역버스가 2·9호선과 만나는 교통 거점으로 환승 수요가 높으나, 광역버스가 시내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차량 정체로 인한 시간이 소요되었다.
 - 이에 서울시, 경기도, 대광위는 올림픽대로와 2호선 당산역이 만나는 하천 부지에 광역버스 환승시설 구축을 추진하여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.
 - 당산역 환승시설을 통해 올림픽대로에서 바로 당산역으로 진입하여 이용객들은 환승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고, 광역버스는 시내 진입 없이 바로 노들로로 회차할 수 있어 시내 혼잡 해소와 함께 버스의 운행간격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.
- 강 위원장은 서울시 등 건설 관계자로부터 당산역 환승시설의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점검하였다.
 - 강 위원장은 “당산역 환승시설은 서울 서부권 광역버스 이용객의 환승 시간을 단축시켜 출퇴근 30분 시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”면서,
 - “오는 6월까지 차질 없는 준공과, 향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”을 당부하였다.
- 앞으로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출퇴근 시간 단축과 도심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하여 주요 교통 거점에 환승센터 및 환승시설 설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.

2024. 5. 10.

국토교통부 대변인